

연변화연컴퓨터정보센터는 컴퓨터정보통신을 주사업으로 현재 중국내 국가경제위원회, 국가내무부, 국가정보센터 및 동북지구정보센터와 컴퓨터정보망을 설립하고 연변주내 사회각계층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금융, 산업, 경영, 과학기술, 국제무역, 시장추세 물가정보 등 신속하고 정확하며 풍부한 다방면의 정보를 전사회적으로 봉사, 취급하고 있다.

또한 국외로 (주)한국PC통신과 국제컴퓨터통신망을 실현하고 “연변은 세계에로 세계는 연변에로”의 주 당위와 주정부의 호소에 발맞추어 한국의 Hitel 정보통신망에 독자적인 DB를 건립하고, 연변의 개혁개방의 좋은 형세를 대외적으로 널리 선전하고 동북아 및 두만강지역의 진일보되는 국제적인 경제발전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해외의 정보를 수입하여 연변 각계층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 Hitel DB에 연변주내 이용자들의 각종 정보의 수출과 대외정보 자문사업도 적극적으로 벌려 나가고 있다.

현재 화연컴퓨터정보센타에서는 이미 전주8개현시(全州8개懸市)에 자신의 독립적인 정보망을 구성하

고 컴퓨터통신과 정보주간잡지 등을 이용하여 매주 정기적인 정보서비스 업무를 폭넓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정보고속도로 컴퓨터통신 현대화 및 INTERNET 정보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신의 특점에 알맞는 정보체계를 수립 확보해 나가고 있다.

멀지 않아 거미줄같이 구석구석 끼고든 전화망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컴퓨터가 결합되고 거기에 인간의 사고와 상상력이 가미되는 “PC통신” 시스템이 우리 생활과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나 막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본, 앞으로 PC통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감안할 때 한 기업회사의 부분적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역부족한 현실이다.

아직 자본이나 기술에 못지 않게 정보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우리 연변 현실에서 이를 전답할 수 있는 전문 그룹화, 기업화회사의 출현과 또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지와 필요한 투자, 그리고 대외적으로의 협작 협력의 필요함을 현재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다.

연변의 기업 및 기관의 정보화현황

중국 길림성 연길시는 다가오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기업체들이 정보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정보화추진기업과 기관에 대하여 알아본다.

자료제공 : 연길 정보문화센타

길림시 우전국

정부정책 및 기업자율경영의 결합

우전국은 국가소유의 기반사업중의 하나로서 정부에서 관할하에서 자주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우전국은 업무추진 및 연길시의 정보산업추진의 선

두작용을 하고 있다. 우전국의 정책, 앞으로의 계획등은 정부의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며 또 연길시내의 특징에 맞게 정보산업을 추진하는 자율적인 기업체의 일면도 있다.

일반현황

○ 전화보급 :

- 현재까지의 연길시내와 시외의 전화보유량 : 총 32만대(시내 28만대)
- 시내·시외 전 주택의 62%가 전화소유, 시내는 84%의 주택 전화보유
- 핸드폰 : 총 5,300대(1995년 11월 통계)
- 전화교환기
 - 1988년 NEC교환기(1만선) 구입
 - 시외교환기 S1240(6천회선) 구입
 - 1994년 시내교환기 EWS(2만선) 구입

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우전국에서는 연길시내의 전화사업이 거의 포화 상태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단순전화시대가 지났기에 다른 사업을 개발해야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정보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 정보서비스 위한 조건 :

- 정부의 정책
- 이미 각 교환국사이에 광케이블로 연결됨 SDH 고속통신회로 보유
- 이미 CHINA PACK정보사업(190개사업 체가 사용하고 있음)

○ 계획

- 96년도 EWS교환기 매입계획, 전화보유량을 계속 늘인다.
- 정보서비스전개를 계획
 - 주민들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 서브를 안장하여 천리안/하이텔과 연결 (중국내의 여러 업체, 駐中한국기업들을 상대로 한국경제정보제공)

○ 특기사항

- PC통신서비스 대책마련 중
 - 컴퓨터보유량이 낮고 지식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PC통신서비스 필요성 인식
- 적극적인 ICC연변홍보관 지원

- 컴퓨터 문화홍보로 전주민의 인식과 마인드를 심어준다.
- 시범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전송조건 마련 계획

화연그룹 정보센터

화연그룹은 중국 국가행정후근개혁(國家行政后勤改革)의 모델이다.

중국의 경제개혁의 봄바람속에서 태어난 화연(華延)은 주 당무위원회(州黨委)가 국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아야 되는 오래된 개념을 무너뜨리고 기관후근이 사회화 복무를 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화연그룹은 중국내의 유일한 국가행정후근개혁의 시범으로 1992년 5월에 그룹사로 설립된 이래 현재는 21개 분설기구 328명의 종업원 5,540만원의 고정자산을 소유한 종합성적인 경제실체로 지위를 튼튼히 다져왔다. 화연집단의 정보센타의 정보화수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현황

○ 업무현황

- 회사내의 LAN 및 DB 구축
- OA환경
- 각종 S/W개발(인사, 재무관리, 물류관리, 부동산관리, 열관리등)
- CHINA PAC에 가입, 각종 전국경제정보 제공, 인터넷 활용

○ 설비

- PC : 286(20대), 386(20대), 486(10대)
- 각종 주변기기들(프린트, 모뎀)

○ 합작상황

- 길림성내에서 한국과 PC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 두만강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 한국경제정보를 국내에 제공

○ 전산부서 인력

- 길림대학, 할빈공대, 심양건축대학, 연변대학, 학졸업생

- C언어와 C++ 언어를 사용
- 향후 추진업무
 - 필요한 유능인력 확보
 - 각종 S/W의 개발
 - 한국 하이텔과의 합작으로 두나라간의 경제 문화정보의 제공
 - PC통신사업, 기업전산컨설팅

화연정보센터의 유리한 점은 정부 주관부문의 극진한 ‘관심’이다. 사업체로서 국외와의 원활한 PC통신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화연정보센터는 이 방면의 잇점을 살리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여 질좋은 정보서비스를 창출함이 가장 매력있는 사업으로 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

인민은행은 중국의 전체 은행중에서 최고의 중앙 관리기관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여 은행기구에 대한 감독,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진행하고 있다. 중국금융개혁후 인민은행이 더 폭넓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의 많은 투입으로 전산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현황

- 전산센터의 장비
 - 미니컴퓨터 2대
 - PC 586 60대, 486 50대, 386 40대
 - 단말기 60여개
 - UPS 축전지 1대
 - 복사기, 프린터 등
- 개발한 S/W
 - 내부 :
 - 고객입출금관리 S/W
 - 계좌청산 S/W
 - 재무제표 S/W
 - 외부 :
 - 타회사를 위해 재무, 인사, 호텔관리, 교통입수금관리, 공안관리 등 S/W개발
- 인력

- 전문 S/W 개발인력 12명(주로 C, COBOL언어사용)

- 복단대학, 천진대학, 길림대학, 길림공대, 동북사범대학 등의 졸업생

업무추진방향

- 기존의 S/W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 S/W 를 용역 개발
- 고객 DB구축하여 보험, 주식, 부동산 등 정 보제공(금융과 관련되는 모든 서비스제공)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최고의 금융기구로서 업무 확장과 시설도입면에서 특별한 이점을 갖고 있다(중국은행은 長成2號位성의 주권소유자로서 위성통신면에서도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전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혁신적인 업무를 개척하고 서비스를 창출한다면 은행계통의 정보화를 이끌어 갈 모범이 될 것이다.

천지전뇌공사(天地電腦公司)

연길시의 30여개 컴퓨터판매업체에서 역사가 가장 길고 규모가 크며 판매, S/W개발, 수리, 컴퓨터기술 배양훈련 등 다각화의 기반을 갖춘 실력있는 기업이다.

일반현황

- 연혁
 - 1986년 연변전자정보센터에서 국가표준제작한글 Code를 개발하는 경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지컴퓨터공사를 설립.
 - 87년 경영 자주권을 얻고 경영자주권을 가진 기업으로 변신.
 - 89년 23 Dot Font 조선글 Code 개발 성공
 - 91년 128 Dot Font 개발 성공
 - 93년 PC 판매산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침체
 - 94년 “조선족 컴퓨터 처리학술대회”소집
 - 95년 새로운 CS 경영방식도입
“제2차 조선족 컴퓨터처리학술대회” 성공 리에 주최
- 주요추진 업무

- 각종 S/W개발, 보급판매
- 컴퓨터, 복사기, 프린트 등 전산기재 판매 및 판매후의 최상서비스제공
- 컴퓨터지식을 배워주는 학습반등
- 미래사업방향
 - 북한과의 협력(평양 “컴퓨터센타”와의 9가지 사업협력)
 - H/W의 판매, 기타 장비 및 소모품 판매업계
 - PC통신에 관련해 한국과의 협작
 - 각종 국제학술대회 주최
- 천지컴퓨터는 이제 다가오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면서 일류의 컴퓨터 판매업체로 기반을 굳히며 더 나아가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실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QOL에 기여한다.
- 운영내용
 - 컴퓨터 기본강좌
 - 각종 S/W 활용
 - PC통신강좌
 -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특강 등
- 학생구성
 - 20대, 30·40대의 여러층의 인원
- 운영현황
 - 사회 각계층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 현재까지 많은 수료자 배출
- 작용
 - 연길시 주민의 마인드 확산과 전산기본지식 및 다가오는 정보사회를 위한 적응력 양성

요약

연길시 사업체의 정보화수준은 심한 차이가 존재한다. 화연, 중국인민은행에서는 훌륭한 인력과 물력을 갖추고 정보화 추진을 강하게 밀고 가고 있는 반면 아직 정보화의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사업체가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상의 실업, 기업체들에게서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수한 인력확보의 중요성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정보화에 대해 인식이 낮지만 소수의 엘리트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이 연길시 기업정보화의 선도군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연, 건설은행이 갖고 있는 우위점은 정부지원외 유수한 인력의 확보이다.

산학협동의 태동

연길시 우전국은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하여 비교적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은 설비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왔으며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정보화는 결코 자금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우전국은 ICC홍보관의 교섭과 동시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인력자원의 사용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곧 산학협동의 태동으로 볼 수 있다. ●

ICC 연변홍보관

정보화 시대에 비추어 ICC 홍보관은 전체연길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지식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길시 주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를 심어주며 그들에게 기본적인 전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현황

- 설립목적
 - 연길시주민에게 정보문화 마인드확산
 - 다가오는 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환경 조성
 - 우전국 /연변과 기대의 PC통신서비스사업을 위한 기초적준비
 -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활용
- 특점
 - 연길시 우전부와 연변과학기술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정부차원, 사업체차원과 교육기관차원에서의 결합)